

디도서 3:5하반절에 대한 고찰과 우리말 번역 제언

민경식*

1. 들어가는 말

본 소고는 디도서 3:5하반절의 의미를 검토하고, 디도서의 신학적 맥락에 적절한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구절은 디도서 저자¹⁾가 밝히는 구원사가 요약된 부분으로 신학적으로 디도서의 어느 구절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스어 원문은 아래와 같다. 본 소고의 관심은 굵고 진하게 표시된 부분에 있다.

ἐξ ἔργων τῶν ἐν δικαιοσύνῃ ἃ ἐποιήσαμεν ἡμεῖς ἀλλὰ κατὰ τὸ αὐτοῦ ἔλεος
ῥώσων ἡμᾶς διὰ λουτροῦ παλιγγενεσίας καὶ ἀνακαινώσεω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우리말 성서²⁾는 이 구절을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 연세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디도서는,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바울의 저작으로 여겨졌으나, 디도서를 포함한 목회서신의 용어나 문체, 신학, 또 목회서신에 반영된 역사적 정황과 교회의 구조 등이 바울의 저작설을 지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저자를 “바울”이 아니라 “디도서의 저자”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바울 저작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오현, 『목회서신 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04-107을 참조하라. 더 자세한 소개로는 G. W. Knight III, *The Pastoral Epistl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W. B. Eerdmans;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2), 21-52를 보라. 물론 목회서신의 바울 저작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대표적으로 E. E. Ellis, *Paul and His Recent Interpreter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1), 49-57을 보라. 또한 L. T. Johnson, *Letters to Paul's Delegates: 1 Timothy, 2 Timothy, Titus*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2-3을 보라. 목회서신 안에 역사적 바울의 글이 일부 끼어들어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면, J. N. D. Kelly, *The Pastoral Epistles* (New York: Harper & Row, 1963), 5. 또한 G. D. Fee, *1 and 2 Timothy, Titus* (Peabody: Hendrickson, 1984), 23-26을 보라. 그는 바울 저작설을 단언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바울 저작설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 외의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바울의 저작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우리말 번역 성서로 『개역개정』(1998)과 『새번역』(2001)과 『공동개정』(1999)과 『성경』(2005)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앞의 세 가지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출판된, 그래서 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개역개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새번역』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공동개정』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2005)

굵고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디도서 3:5하반절이다. 『개역개정』의 번역본문과 『공동개정』의 번역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또한 『성경』(2005)은 『공동개정』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이와는 또 다른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사건,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졌다. 『새번역』도 이 번역 전통을 따르고 있다. 반면에 『공동개정』과 『성경』(2005)은 그리스어 원문의 문장 구조를 다소 다르게 이해하였다. 『공동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써” 구원하셨다. 반면에 『성경』(2005)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구원하셨다. 물로 씻는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물로 씻는 행위의 목적이 된다. 여기서 ‘다시 나게 하는 것’과 ‘새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인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또는 두 가지 관점인가? 이것이 본 소고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본 소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항목은 구원사에서의 성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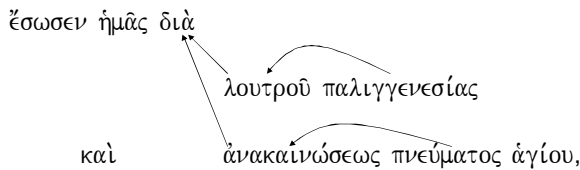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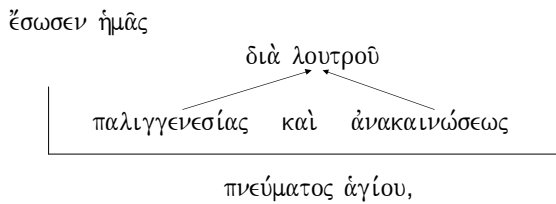
개신교회에서 ‘공인된’ 성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가톨릭의 공식 성서인 『성경』(2005)도 참고할 만하다.

기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디도서의 저자는 이해하는가? 『개역개정』에 따르면 성령은 “새롭게 함”과 관련이 있다(“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번역』도 마찬가지다(“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 그런데 『공동개정』에 따르면, 성령은 “씻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 “씻음”의 결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된다. 『성경』(2005)도 이에 준한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국 두 번역 전통의 차이는 대등접속사 카이(καί)가 무엇과 무엇을 묶고 있는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소고는 우선 디도서 3:5하반절의 대등접속사 카이의 쓰임을 중심으로 이 문장의 구조를 밝히고, 이어 이 문장에 사용된 용어들(루트론, 팔링게네시아, 아나카이노시스)³⁾의 의미를 논한 후에, 기존의 우리말 번역을 평가하고 새로운 우리말 번역을 제시할 것이다.

2. 카이(καί),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인가?

3:5하반절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등접속사 카이(καί)이다. 『개역개정』과 『공동개정』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등접속사 카이(καί)가 무엇과 무엇을 묶고 있는지에



3)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원칙은 다음을 따랐다. 민경식, “성서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언”, 『신약논단』 17 (2010), 177-200.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문장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다. 위의 것은 『공동개정』과 『성경』(2005)의 경우이고, 아래의 것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경우이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다섯 개의 속격 명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각각의 속격 명사는 무엇을 수식하는가? 또는 어떤 속격 명사가 전치사 디아(διά)에 걸리는가?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카이가 “루트루(λουτροῦ)”와 “아나카이노세오스(ἀνακαινώσεως)”를 대등하게 묶고 있으며, “루트루”와 “아나카이노세오스” 둘 다 전치사 디아(διά)에 걸리기 때문에 모두 속격 형태로 나타났다고 본다. 또한 “루트루”는 “팔링게네시아스(παλιγγενεσίας)”의 한정을 받고 있고, “아나카이노세오스”는 “프뉴마토스 하기온”의 한정을 받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 “거듭남의 씻음을 통해서” 그리고(καί) “성령의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두 개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첫째는 기독교공동체에 들어오는 최초의 사건으로서의 세례예식(세례성사)이며, 둘째는 입교예식(견진성사)이라는 것이다.⁴⁾

반면에, 『공동개정』과 『성경』(2005)은 접속사 카이가 “팔링게네시아스”와 “아나카이노세오스”를 대등하게 묶고 있으며, 이 둘이 “루트루”를 한정한다고 본다. 즉,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하는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번역 전통 가운데 후자, 곧 『공동개정』과 『성경』(2005)의 번역이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 우선, 아나카이노세오스(갱신)⁶⁾와 대응을 이루

4) G. D. Fee, *1 and 2 Timothy, Titus*, 204. 또한 C. K. Barrett, *The Pastoral Epistle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3), 142; 권오현, 『목회서신 주석』, 583-584를 참조하라. 이들은 이러한 해석이 세례예식과 입교예식(또는 가톨릭의 견진성사)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소개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또한 J.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a Re-examination of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 of the Spirit in Relation to Pentecostalism Today* (Naperville: A. R. Allenson, 1970), 165를 보라. 그는 이것이 Theodoret에게서 기인된 옛날 해석이라고 평가한다.

5) 우리말 『개역』과 『새번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번역은 『공동번역』과 『성경』(2005)과 같다. 『개역』과 같은 문장 구조를 지지하는 주석은 A. T. Hanson, *The Pastoral Epistle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191. 그러나 그는 왜 그렇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다. 그는 ἀνακαινώσεως 앞에 전치사 διά가 있는 사본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데, 그 몇몇 사본이라는 것들에는 ἀνακαινώσεως가 아니라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앞에 전치사 διά가 덧붙는다(D*, F, G, b, vg^{ms}, Lucifer). 또한 D. Guthrie,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206. 그 역시 『개역』과 같은 번역을 선호한다. 그가 내세우는 근거는, 거듭나는 과정이 새롭게 되는 과정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거듭나는 것이 곧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G. W. Knight III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The Pastoral Epistles*,

는 것으로 팔링게네시아(중생)⁷⁾가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의미상 이 둘이 가깝다는 것이, 그래서 거의 동의어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러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⁸⁾ 둘째로, 만약에 아나카이노세오스가 전치사 디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속격으로 표기된 것이라면, 아나카이노세오스 바로 앞에 전치사 디아를 한 번 더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이다.⁹⁾ 셋째로, 『공동번역』과 『성경』(2005)의 번역을 따를 때, 성령은 구원의 전체 과정과 관련을 갖게 되는 반면,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번역을 따를 경우에 성령의 역할은 “새롭게 하는 것”에만 제한이 되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¹⁰⁾ 마지막으로, 전자의 번역은 제도화된 가톨릭교회의 교리(세례와 견진)를 반영하는 것으로,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디도서 3:5에서 접속사 카이는 팔링게네시아스와 아나카이노세오스를 묶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로써 하나

342-344를 보라. 그는 전자의 해석, 즉 접속사 카이가 루트루와 아나카이노세오스를 연결하며, 이 둘은 각각 접속사 디아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석서는 『공동번역』과 『성경』(2005)과 같이 이해한다. 대표적인 영미권 주석인 앵커바이블의 경우, “새롭게 함”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는 전치사 “of”를 덧붙임으로써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saved us through a washing of regeneration and of renewal by the Holy Spirit.” J. D. Quinn, *The Letter to Titu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0), 194. 또한 G. D. Fee, *1 and 2 Timothy, Titus*, 204를 보라. 그는 이 두 가지(중생, 갱신)를 구원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J.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166-167; P. H. Towner, *The Goal of our Instruction: The Structure of Theology and Ethics in the Pastoral Epistl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115; Chr. Zimmermann, “Wiederentstehung und Erneuerung (Tit 3:5): Zu einem erhaltenswerten Aspekt der Soteriologie des Titusbrief,” *Novum Testamentum* 51 (2009), 275. 다만 타우너(Towner)와 짐머만(Zimmermann) 사이에 작은 차이가 있는데, 타우너는 ‘성령’이 ‘씻음’을 한정한다고 보는 반면, Zimmermann은 ‘성령’이 ‘팔링게네시아’와 ‘아나카이노시스’를 수식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그림에서처럼, 성령은 문법적으로는 ‘씻음’을 수식하며, 또 의미적으로는 앞의 과정 전체(διὰ λουτροῦ παλιγγενεσίας καὶ ἀνακαινώσεως)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6) Walter Bauer, “ἀνακαινῶσις”,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von Kurt und Barbara Aland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108. “Bad d. Erneuerung durch d. Hl. Geist (neb. παλιγγενεσία)”라는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아나카이노세오스가 팔링게네세오와 마찬가지로 루트루를 수식하며 또한 성령의 수식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7) Walter Bauer, “παλιγγενεσία”,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1226.

8) J.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166; G. D. Fee, *1 and 2 Timothy, Titus*, 204, 205.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은유적 표현이다. 또한 R. Schnackenburg, *Baptism in the Thought of St. Paul* (Oxford: Basil Blackwell, 1964), 10. 그에 따르면, *πάλι*와 *ἀνα*가 상응하며, *καινώσις*(동사로는 *καινώ*)는 창조적 행위를 전제하는데, 따라서 이것이 *γένεσις* 사상을 잘 보완한다는 것이다. *παλιγγενεσία*와 *ἀνακαινῶσις*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을 보라.

9) J.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166.

10) 이에 대해서는 아래 “성령”을 다루는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디도서 저자는 두 가지 사건(‘씻음을 통해서’ 그리고 ‘새롭게 함을 통해서’)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씻음을 통해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거듭남과 새롭게 함: 팔링게네시아(παλιγγενεσία)와 아나카이노시스(ἀνακαίνωσις)

디도서 3:5에서 접속사 카이로 묶인 팔링게네시아와 아나카이노세오스는 둘 다 루트루(씻음)를 한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디도서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두 가지 종류의 씻음을 언급한다. 하나는 ‘팔링게네시아의 씻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나카이노시스의 씻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씻음을 통해서’(διὰ λουτροῦ), 즉 ‘씻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씻음이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의 의미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1. 팔링게네시아

팔링게네시아는 팔린(παλίν)과 게네시스(γένεσις)의 결합이다.¹¹⁾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다시 됨”을 의미한다. 신약성서에서 디도서 외에는 마태복음 19:28¹²⁾에서만 언급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종말론적으로 사용되어,¹³⁾ 다가오는 미래를 가리킨다.¹⁴⁾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그러나

11) Büchsel, “παλιγγενεσία”,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686; Chr. Zimmermann, “Wiederentstehung und Erneuerung (Tit 3:5): Zu einem erhaltenswerten Aspekt der Soteriologie des Titusbriefes”, *Novum Testamentum* 51 (2009), 273-274.

12) ὁ δὲ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ὅτι ὑμεῖς οἱ ἀκολουθήσαντές μοι ἐν τῇ παλιγγενεσίᾳ, ὅταν καθίσῃ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ἐπὶ θρόνου δόξης αὐτοῦ, καθήσεσθε καὶ ὑμεῖς ἐπὶ δώδεκα θρόνους κρίνοντες τὰς δώδεκα φυλὰς τοῦ Ἰσραὴλ. And Jesus said to them. Verily I say to you, that you who have followed me, **in the regeneration** when the Son of man shall sit on the throne of his glory, you also shall sit upon twelv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사역). 우리말 『새번역』에서는 “ἐν τῇ παλιγγενεσίᾳ”가 “새 세상에서”로 번역되었고, 『공동번역』에서는 “새 세상이 와서”로, 『개역개정』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로 번역되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번역된다.

13) C. K. Barrett, *The Pastoral Epistle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3), 142; 마르틴 디벨리우스, 『목회서신』(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8), 214; U. Lutz, *Matthew 8-20*, J. E. Crouch,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517;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742-743.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디도서에서는 이 단어의 사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디도서에서는 이 단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이다.¹⁵⁾

그렇다면 ‘다시 됨의 씻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씻음’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다시 논의할 테고, 여기서는 ‘다시 됨’ 또는 ‘거듭 남’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받았는가, 아니면 이방 신비종교의 영향을 받았는가, 아니면 유대전통의 영향을 받았는가? 둘째, 이 단어가 개인적인 차원의 거듭남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우주적 차원의 거듭남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다. 이 문제는 셋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 셋이 서로 연관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적 사용이나 신비종교에서의 사용 역시 스토아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말하자면, 팔링게네시아는 원래 스토아철학에서 온 개념이며, 스토아철학에서 이 개념은 새로운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스토아철학은 세상이 주기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기를 반복한다고 가르치는데, 이 때 새로운 세상을 지시하는 단어가 팔링게네시아이다.¹⁶⁾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도 이 단어를 우주론적 의미로 사용하였고, 신약 외경 가운데 『클레멘스전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우주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¹⁷⁾ 그러면

14)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는 다가오는 미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W. D. Davies and D. C. Allison, J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II (New York: T & T Clark Ltd, 1997), 57; R. Schnackenburg, *Baptism in the Thought of St. Paul*, 10. 유대문헌에서의 쓰임에 대해서는 Christiane Zimmermann, “Wiederentstehung und Erneuerung (Tit 3:5): Zu einem erhaltenswerten Aspekt der Soteriologie des Titusbrief”, *Novum Testamentum* 51 (2009), 281-289를 보라. 또 다른 견해로는 J. D. M. Derrett, “Palingenesia (Matthew 19.28)”,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0 (1984), 51-58을 보라. 그는 마태복음의 팔링게네시아는 “새 세상”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이 단어의 마태복음에서의 사용과 디도서에서의 사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전제한다. 루츠(U. Lutz) 역시 이 가능성을 인정한다. *Matthew 8-20*, 517. 여기서는 이 구절에 얽힌 논쟁점을 소개만 하고 넘어간다. 이 논의는 디도서의 논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마태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든, 디도서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5)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5절)

16) 스토아철학에서의 쓰임에 대해서는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798-799를 보라.

17) 마르틴 디벨리우스, 『목회서신』, 213-214. Philo, *Vit Mos* II 65; *I Clem* 9,4. 필로는 약 기원전 20년경에 태어나서 약 기원후 50년까지 살았으니,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다고 할 수 있다. 필로에 대해서는 G. E. Sterling, “Philo of Alexandria”,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957-958 또는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 (eds.), “Philo”,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서도 필로의 또 다른 작품에서는 이 단어가 죽음 이후의 생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데,¹⁸⁾ 이러한 쓰임은 이방 신비종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이 두 번째 문제이다.

여기서 팔링게네시아는 개인적 차원의 거듭남인가, 우주적 차원의 거듭남인가? 개인적 차원의 거듭남이라면 개인적인 개종을 의미할 것이고, 우주적 차원의 거듭남이라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넘어서는,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다시 말하자면, 팔링게네시아는 개인적 차원의 거듭남을 포함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우주적 차원의 거듭남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디도서 저자가 당시의 스토아 철학적 영향 밖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위의 두 질문을 종합하여 본다면, 팔링게네시아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용어이며, 스토아 철학의 영향권 안에 있던 시대를 살았던 디도서 저자가 팔링게네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 그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팔링게네시아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듭나는 것이다.

3.2. 아나카이노시스

아나카이노시스는 신약에서 디도서 외에는 로마서 12:220)에만 나온다. 신

Oxford University Press, 32005) 1288을 보라. 『클레멘스전서』에 대해서는 A. Lindemann and H. Paulsen, *Die Apostolische Väter* (Tübingen: J. C. B. Mohr, 1992), 78-79를 보라. 『클레멘스전서』 9:4의 내용은 90-91에서 확인하라.

18) Philo, *Cher.* 114.

19) Chr. Zimmermann, “Wiederentstehung und Erneuerung (Tit 3:5)”, 272-295를 보라. 특히 294, 295. 팔링게네시아가 개인적 차원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주적 차원의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의 논문의 핵심 논지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rebirth(wiedergeburt)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regeneration(wiederentstehung)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G. W. Knight III, *The Pastoral Epistles*, 342. 그 역시 개인적 차원의 구원이라는 의미로 이것이 “개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본다.

20) καὶ μὴ συσχηματίζεσθε τῷ αἰῶνι τούτῳ, ἀλλὰ μεταμορφώσθε τῇ ἀνακαινώσει τοῦ νοῦς εἰς τὸ δοκιμάζειν ὑμᾶς τί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τὸ ἀγαθὸν καὶ εὐάρεστον καὶ τέλειον. And don'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may prove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cceptable and perfect(사역).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새번역』). 우리말 『새번역』과 『개역』에서는 “ἀνακαινώσεις”가 “새롭게 함”으로 번역되었고, 『공동번역』에서도 이에 준해서 번역

약 외경 가운데서는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한 번 사용되었다.²¹⁾ 우선, 로마서에서 이 단어는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로마서 본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신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²²⁾ 그것은 곧 내적인 변화, 즉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변화로서, 이 세대와의 구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아나카이노시스이다. 『헤르마스의 목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너희의 영들을 새롭게 함”(ἡ ἀνακαινώσις τῶν πνευμάτων ὑμῶν)이라는 문맥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가리킨다.

고린도후서 4:16²³⁾과 골로새서 3:10²⁴⁾에는 아나카이노오(ἀνακαινώω)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 아나카이노시스이다. 여기서도 이 동사는 내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고린도후서 4:16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사의 의미는 ‘낡아가다’ 또는 ‘부패하다’의 반대 의미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또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3:10에서도 이 동사의 쓰임새는 비슷하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점점 더 닮게 됨으로써, 즉 창조주를 더 닮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

되었다. 그리스문학사 전체에서 보더라도, 이 용어는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R. Jewett, *Romans II*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733.

21) 『헤르마스의 목자』 16장 9절. “나는 그녀에게 종말이 이미 왔는지 그때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답이 아직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답이 다 세워져야 비로소 종말이다. 답은 곧 완성될 것이다.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마라. 너와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영들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문은 하성수(번역), 『헤르마스 목자』(왜관: 분도출판사, 2002), 139를 보라. “너희 영의 새롭게 함”(ἡ ἀνακαινώσις τῶν πνευμάτων ὑμῶν)이라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22) R. Jewett, *Romans II*, 733.

23) Διὸ οὐκ ἐγκακοῦμεν, ἀλλ’ εἰ καὶ ὁ ἕξω ἡμῶν ἄνθρωπος διαφθείρεται, ἀλλ’ ὁ ἔσω ἡμῶν ἀνακαινοῦται ἡμέρα καὶ ἡμέρα. Therefore we never become discouraged. Even though our outward man is decaying, but our inward man is renewed day by day(사역). 우리말 『새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로 번역되었고,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에도 비슷하게 번역되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번역』

24) καὶ ἐνδυσάμενοι τὸν νέον τὸν ἀνακαινούμενον εἰς ἐπίγνωσιν κατ’ εἰκόνα τοῦ κτίσματος αὐτόν. And have put on the new man, which is being renewed unto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him who created him.

화됨으로써 그분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것 역시 외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로서의 새로워짐을 말한다.

또 다른 동사 형태인 아나카이니조(*ἀνακαινίζω*)는 히브리서 6:6에 나온다.²⁵⁾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의 권능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문은 말한다.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 또는 새롭게 됨으로써 회개에 이르는 것은 결국 내적인 변화로서의 새롭게 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아나카이노시스의 용례와 이 단어와 관련된 동사들의 용례를 종합하여 본다면, 디도서에서의 아나카이노시스 역시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새로워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세례예식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²⁶⁾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에는 세례가 동반될 수는 있어도 세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팔링게네시아와 아나카이노시스는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²⁷⁾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건,²⁸⁾ 또는 새로운 세상에 편입되는 과정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팔링게네시아와 아나카이노시스가 둘 다 루트루를 수식한다면,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 즉 루트론(씻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셈이다. 이제 다음장에서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씻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4. 성령의 씻음: 루트론(*λουτρόν*)과 성령

4.1. 루트론

디도서의 본문에서 “씻음”은 그리스어 루트론(*λουτρόν*)을 번역한 것인데,

25) καὶ παραπεσόντας, πάλιν ἀνακαινίζειν εἰς μετάνοιαν, ἀνασταυροῦντας ἑαυτοῖς τὸν υἱὸν τοῦ θεοῦ καὶ παραδειγματίζοντας. And if they shall fall away, (it is impossible) to renew them again unto repentance, because they are crucifying to themselves the Son of God again, and insulting him in public(사역). 우리말 『새번역』에서는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로 번역되었으며,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에도 비슷하게 번역되었다.

26) 여기서 사용된 동사 아나카이니조가 세례예식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J. Behm, “ἀνακαινίζω”,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3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451을 보라.

27) G. D. Fee, *1 and 2 Timothy, Titus*, 204.

28) J.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167.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정결예식으로서의 씻는 행위인가, 물로 주는 세례예식인가, 아니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씻음을 의미하는가?

(1) 정결예식으로서의 씻는 행위

칠십인역에 이러한 의미로 루트론이 사용된 용례가 있다. 구약 외경 가운데 집회서 34장 25절²⁹⁾에서는 루트론이 정결예식으로서의 씻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체에 뒹던 손을 씻으면 다시 깨끗해지겠지만, 그 깨끗해진 손으로 또 다시 시체를 만진다면, 씻었다한들(ἐν τῷ λουτρῶ)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공동개정』과 『성경』(2005)의 번역이 이러한 해석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또는 “물로 씻어” 구원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씻음”이 영적인 정화에 대한 은유적 표현, 즉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행위³⁰⁾라는 이해에 근거한다. 그러나 디도서 본문은 이런 이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디도서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5절). 즉, 정결예식을 포함한 율법 준수 여부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디도서 본문의 요지이다. 또한 여기서 루트루는 일차적으로 팔링게네시아스와 아나카이노세오스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이 전체가 다시 성령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성령의 씻음은 오히려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부음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³¹⁾

(2) 물로 주는 세례

“씻음”은 문자적으로 세례를 암시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세례를 의미할 수 있으며, 초기 기독교에서 실제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Aelius Aristides, Arrianus 등).³²⁾ 이를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루트론이 물로 주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³³⁾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주된 근거는 에베소서

29) βαπτίζόμενος ἀπὸ νεκροῦ καὶ πάλιν ἀπτόμενος αὐτοῦ τί ὠφέλησεν ἐν τῷ λουτρῶ αὐτοῦ. 시체에 뒹던 손을 씻고 또 다시 그것을 만진다면 씻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역)

30) G. W. Knight III, *The Pastoral Epistles*, 342.

31) 이에 대해서는 아래 “영적인 씻음”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2) W. Bauer, “λουτρόν”,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von Kurt und Barbara Aland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8), 975.

33) 많지는 않다. 대표적으로는 J. N. D. Kelly, *The Pastoral Epistles*, 252-253; A. T. Hanson, *The Pastoral Epistle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5:26³⁴)에 나타난 루트론의 용례이다. 에베소서에서 루트론이 물로 주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처럼 디도서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루트론은 세례를 의미하는 하지만, 일반 신자들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원형으로서의 예수의 세례를 가리킨다는 것이다.³⁵⁾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디도서에서의 용례를 에베소서의 용례와 기계적으로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팔링게네시아가 디도서와 마태복음에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최대한 양보하여, 둘의 용례가 같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에베소서의 루트론이 반드시 물로 주는 세례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³⁶⁾ 에베소서 본문은 “교회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물세례를 베풀겠는가? 이것은 교회를 성령으로 정화시키는 행위의 은유적 표현이다.³⁷⁾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개의 사건(세례와 건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주장³⁸⁾이 루트론을 세례로 해석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의 사건(루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것이 팔링게네시아와 아나카이노시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루트론이 물로 주는 세례일 필요가 없게 된다.

(3) 영적인 씻음

디도서 본문에서 ‘루트론’은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씻음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³⁹⁾ 본문에서 루트론은 성령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이

1966), 119-120; 마르틴 디벨리우스, 『목회서신』, 213; C. K. Barrett, *The Pastoral Epistles*, 141-142; J. M. Bassler, *1 Timothy, 2 Timothy, Titu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206.

34) ἵνα αὐτὴν ἀγίαση καθαρίσας τῷ λουτρῷ τοῦ ὕδατος ἐν ῥήματι.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개역개정』.

35) A. T. Hanson, *The Pastoral Epistles*, NCBC, 191을 보라.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가 받은 세례보다는 모든 기독교인을 대신해서 예수가 죽음의 물에 들어간 사건으로서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을 선호한다.

36) 자세한 논의는 J.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162-165를 보라. 그는 에베소서 본문에서 ‘물로 씻는 것’이 일차적으로 ‘신부의 혼전목욕재계 전통’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물로 씻는 것은 성령으로 교회를 정화시키는 행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37) *Ibid.*, 164-165.

38) 이러한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은 위의 II장 “카이(καί),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인가?”를 보라.

사실은 여기서 씻음이 물로 씻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씻는 것임을 드러낸다. 더군다나 이 씻음은 거듭나게 하는 씻음인 동시에 새롭게 하는 씻음이다.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단락의 문맥이 이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디도서 3:6의 보도이다. 6절은 5절의 “성령의 씻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6절)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⁴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5절)는 보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¹⁾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행 2:1),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있던 곳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2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리자(3절),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4절). 이 성령강림 사건은 물론 주는 세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디도서의 본문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4.2. 성령의 역할

목회서신에는 성령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4:1에 한 번, 디모데후서 1:14에 한 번, 그리고 디도서에 한 번, 총 세 번 언급될 뿐이다.⁴²⁾ 그런데 구원의 과정을 묘사할 때 성령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성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디도서 저자의 이해를 반영한다. 물론 성령이 전승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8절의 전승인용 공식(“이 말은 참됩니다!”)⁴³⁾을 고려한다면, 디도서 저자가 성령을 전승에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디도서의 구원사역에서의 성령의 중요성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39) 대다수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한다. 대표적으로 J.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168; P. H. Towner, *The Goal of our Instruction*, 116-117; J. D. Quinn, *The Letter to Titus*, 342.

40) J. D. G. Dunn, *Baptism in the Holy Spirit*, 166. 또한 행 2:1 이하를 참조하라.

41) *Ibid.*, 166.

42) 이 외에도 딤후 3:16과 딤후 1:7도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성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세 군데뿐이다.

43) “πιστός ὁ λόγος”는 신약성서에서는 목회서신에만 5번(딤후 1:15, 3:1, 4:9; 딤후 2:11; 딤후 3:8) 나오는 인용공식으로 앞에 언급된 내용(4-7절)을 지시한다. G. W. Knight III, *The Pastoral Epistles*, 100, 347을 보라. 인용공식으로 소개되는 부분은 전승에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S. G. Wilson, *Luke and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SPCK, 1979), 25.

성령은 씻는 행위의 주체인가?⁴⁴⁾ 그렇지 않다. 씻기는 행위의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성령은 도구에 해당한다. 이것은 성령이 도구의 속격(genetivus instrumentalis)으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몇몇 사본에는 성령 앞에 전치사 디아(διά)가 붙어 있는데,⁴⁵⁾ 이러한 독법도 이 속격이 도구의 속격임을 지지한다.

씻음은 성령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씻어주신다. 마치 물이 씻어주는 주체가 아닌 것과 같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기시면, 즉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한다.

5. 맺는 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하나님께서 “씻음”과 “새롭게 함”이라는 두 개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례(가톨릭의 세례성사)와 입교(가톨릭의 견진성사)를 연상시킨다. 두 단계의 구원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씻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씻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씻음, 즉 성령세례를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개신교에서 공인하는 성서가 가톨릭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가톨릭에서 공인하는 성서는 오히려 다른 방식, 즉 한 가지 사건으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톨릭 성서 역시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톨릭 공인성서인 『성경』(2005)은 “물로 씻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물세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언급되는 “씻음”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연상시키는 성령세례로서, 물로 주는 세례를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공동개정』은 “씻음을 통해서”를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러한 번역은 이 사건을 정결예식으로서의 씻음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디도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므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롭게 된다. 이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성령이다. 이것이 디도서 3:5가 증언하는 구원의 과정이다.

44) Lea and Griffin, *1, 2 Timothy, Titus*, 323 “... washing is an activity of the Holy Spirit.”

45) D*, F, G와 같은 대문자사본과 몇몇 라틴어 사본(b vg^{ms}), 그리고 4세기 중엽의 교부 루시퍼(Lucifer)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말 번역을 제안한다. 우리말 번역을 두 가지로 제안하는 이유는 문자적 번역 가능성과 기능적 번역 가능성을 폭넓게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래의 제안은 제안일 뿐이다. 이를 토대로 더 아름다운 우리말 번역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 | |
|--------|---|
| 원문 | ἔσωσεν ἡμᾶς διὰ λουτροῦ παλιγγενεσίας καὶ ἀνακαινώσεω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
| 문자적 번역 | 그가 중생과 갱신의 성령세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
| 기능적 번역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씻어주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

<주요어>(Keywords)

성서번역, 세례(씻음), 중생(거듭남), 갱신(새롭게 됨), 성령, 디도서 3:5.

Scripture Translation, baptism (washing), palingenesia (regeneration), anakainosis (renewal), the Holy Spirit, Titus 3:5.

(투고 일자: 2012. 2. 21, 심사 일자: 2012. 2. 24, 게재 확정 일자: 2012. 2. 24)

<참고문헌>(References)

- Barrett, C. K., *The Pastoral Epistle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3.
- Bassler, J. M., *1 Timothy, 2 Timothy, Titu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Bauer, W.,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6,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von Kurt und Barbara Aland*,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 Behm, J., “ἀνακαινίζω”,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3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5, 451.
- Büchsel, F., “παλιγγενεσία”,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685-688.
- Cross, F. L. and Livingstone E. A., eds., “Philo”,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Davies, W. D., and Allison, Jr. D. C.,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II, New York: T & T Clark Ltd, 1997.
- Derrett, J. D. M., “Palingenesia (Matthew 19.28)”,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0 (1984), 51-58.
- Dibelius M., 『목회서신』,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8.
- Dunn, J. D. G., *Baptism in the Holy Spirit: a Re-examination of the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 of the Spirit in Relation to Pentecostalism Today*, Naperville: A. R. Allenson, 1970.
- Ellis, E. E., *Paul and His Recent Interpreter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1.
- Fee, G. D., *1 and 2 Timothy, Titus*, Massachusetts: Hendrickson, 1984.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 Guthrie, D.,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 Hanson, A. T., *The Pastoral Epistle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66.
- Hanson, A. T., *The Pastoral Epistle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 Jewett, R., *Romans II*,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Johnson, L. T., *Letters to Paul's Delegates: 1 Timothy, 2 Timothy, Titus*,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 Kelly, J. N. D., *The Pastoral Epistles*, New York: Harper & Row, 1963.
- Knight III, G. W., *The Pastoral Epistle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Mich.: W. B. Eerdmans;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2.

- Lea, T. D. and Griffin, Jr, H. P., *The New American Commentary: 1, 2 Timothy, Titus*,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 Lindemann, A. und Paulsen, H., *Die Apostolische Väter*, Tübingen: J. C. B. Mohr, 1992.
- Lutz, U., *Matthew 8-20*, J. E. Crouch,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Nolland, J.,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 Quinn, J. D., *The Letter to Titu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0.
- Schnackenburg, R., *Baptism in the Thought of St. Paul*, Oxford: Basil Blackwell, 1964.
- Sterling, G. E., “Philo of Alexandria”,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957-958.
- Towner, P. H., *The Goal of our Instruction: The Structure of Theology and Ethics in the Pastoral Epistl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 Wilson, S. G., *Luke and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SPCK, 1979.
- Zimmermann, Chr., “Wiederentstehung und Erneuerung (Tit 3:5): Zu einem erhaltenswerten Aspekt der Soteriologie des Titusbrieft”, *Novum Testamentum* 51 (2009), 272-295.
- 권오현, 『목회서신 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민경식, “성서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언”, 『신약논단』 17 (2010), 177-200.
- 하성수(편역), 『헤르마스 목자』, 왜관: 분도출판사, 2002.

<Abstract>

A Consideration on Titus 3:5 and a Proposal of a New Korean Translation

Prof. Kyoung-Shik Min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itus 3:5b (ἔσωσεν ἡμᾶς διὰ λουτροῦ παλιγγενεσίας καὶ ἀνακαινώσεως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and to propose a new possibility for Korean translation of the verse. As far as I am concerned, the existing official Korean translations of the Bible (NKRV, CT, RNKSV, and Bible[2005]) which are used in Korean Protestant Church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do not deliver the meaning of the verse satisfactorily.

In order to reach the goal, this study, first, looks into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verse, and then, discusses the meaning of the following terms: “washing” (λουτρόν), “regeneration” (παλιγγενεσία), and “renewal” (ἀνακαινώσις). I argue that both “regeneration” and “renewal” are dependent on “washing”, and that this “washing” is the only act of God. “Regeneration” and “renewal” are, then, two different aspects of a single event (“washing”),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Spirit-baptism. Thus there is no need to assume that there is a series of events in God’s salvation program: water-baptism (“washing of rebirth”) and confirmation (“renewal of the Holy Spirit”).

Just as “regeneration” and “renewal”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washing”, so are they from the Holy Spirit. Therefore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s not restricted to the “renewal.” The Holy Spirit is an agent that effects the regeneration and renewal and accomplishes the process of the salvation of God.

At the end, I propose two possible Korean translations: one literal, and the other functional.

(1)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of renewal by the Holy Spirit.

(2) God saved us by washing us with the Holy Spirit which gave us a new world and a new beginning.